

김영란법 시행...지자체장 어떻게 지내세요

사라진 만찬...몸 사리는 단체장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운신 폭이 크게 좁아지고 있다. 만나서 식사나 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높아 지방정치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만찬’도 사라지고 있다. 차기 선거를 위해 지지세를 모으고,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주민소통 차원에서라도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수행비서 수첩을 채웠던 만찬 일정이 사라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식사를 하지 않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등 자구책도 내놓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식 만찬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다. ‘각자 내기’를 원칙으로 정한 시·도지사도 있다. 시·도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만찬 참석이 불가피하다

윤장현 시장 일정 안잡고 이낙연 지사는 축소 기초단체장·의원 ‘더치페이’...주민 만남 줄여

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전남지사로 만찬 횟수를 대폭 줄였지만 필요한 행사에는 참석하되 식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이달 초 정례 직원조회 때 “김영란법은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 대인 간의 거리를 적정화하는 문화의 큰 흐름”이라며 공무원들이 술선수법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시장, 군수도 저녁자리는 되도록 피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개인적인 만남을 자제하고, 공식행사도 줄여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 시장이) 검사출신 이어서인지 원래 법 시행 전부터 되도록 공식행사를 자제하는 등 청렴행정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은 법 시행 초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3만원이 넘지 않는 식사 메뉴를 선택하고,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나 소통을 위한 면담 횟수도 다소 줄여왔다.

임 정장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김영란법’보다는 처벌 규정이 무거운 선거법이 더 신경 쓰인다”면서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등 다른 자치단체장들 역시 가급적 저녁 만찬을 없애고, 업무관련 저녁 약속에 참석할 경우에는 본인 밥값은 직접 지불하고 있다.

주민 대표인 시·도의회, 시·군·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임명규 전남도의회의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적인 행사는 자제하고 있고 공식 행사에서는 밥값을 직접 지불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밥값 3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뒤 행사장을 나왔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이후 이장단 간담회, 축제 참석 등을 모두 취소했다.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자칫 곤란한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충행기자 ga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태풍 ‘차바’의 흔적

전남 농작물 피해 3714ha

벼 2964ha·과수 706ha 등

태풍 ‘차바’로 인한 전남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이 모두 3714ha로 조사됐다. 전남 도는 오는 14일까지 농가별 정밀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에 복구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5일 전남 지역을 덮친 태풍 차바로 인해 벼 2964ha, 과수 706ha, 채소 등 44ha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1294ha로 가장 컸고, 완도 709ha, 신안 283ha, 보성 271ha, 광양 259ha, 장흥 95ha 등 주로 남부해안 지역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밖에도 비닐하우스 23동이 파손되고, 여수에서는 양봉 10군이 폐사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7일 장흥읍 영

전들 벼 쓰러짐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황속기로 접어든 벼가 쓰러짐 피해를 입은 만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논 물을 빼고 조기에 수확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태풍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가용한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시 등에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지역자활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이 응급복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울산에 복구지원단 파견

광주시가 제18호 태풍 ‘차바’의 최대 피해지역인 울산지역에 긴급피해복구지원단을 파견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원 등 140명으로 구성된 복구지원단은 지난 8일부터 1박2일동안 울산 현지에서 침수로 인한 토사제거, 주택가 주변 부유물 잔해정리 등 복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복구지원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수와 빵, 우유

등도 전달했다.

광주시는 울산 피해현장에서 복구지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영호남 상생을 위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긴급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했다”면서 “이번 자원봉사로 울산지역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흥겨운 주말 광주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축제에 참가한 무용단원들이 ‘빛고을 아리랑’ 곡에 맞춰 춤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北 추가도발 이상 징후 포착

오늘 노동당 창건일, 핵 실험장·미사일 기지 등 분주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핵실험을 감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 원산 지역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기지에서 이상 징후

가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남쪽, 서쪽 경도 입구 부근에서 트럭과 건축자재, 상자 등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새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북쪽(2번) 경도는 지난달 5차 핵실험이 감행된 곳이다.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황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지난달 중순 공개한 ‘백두산개발’의 신형 로켓을 장착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원산 지역의 무수단 미사일 기지에서는 이동식 발사차량의 움직임이 일부 식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내부 기념일이나 국제 사회와의 갈등 등 주요 계기 때마다 각종 무력시위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이상 기류가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 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움직임에 맞서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벨평화상에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반세기 내전 종식

올해 노벨평화상은 콜롬비아의 반세기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이끈 후안 마누엘 산토스(65·사진) 콜롬비아 대통령이 받게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산토스 대통령을 2016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노와 평화협정을 서명했다. 이로써 콜롬비아에서 계속된 내전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50년 이상 계속된 내전을 끝내려는 산토스 대통령의 확고한 노력을 인정해 평화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토스 대통령은 한 때 콜롬비아 정구군을 이끌고 반군 토벌에 앞장선 강경파에서 평화협정을 주도한 온건파로 변신해 내전을 해결한 정치 지도자다.

그는 2010년 평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2년 11월부터 자신의 정치생명을 평화협정 타결에 걸고 쿠바 아바나에서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번 노벨상 수상자 선정이 산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내전 당사자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거대한 역경과 괴로움에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콜롬비아 국민, 평화를 위한 절차에 기여한 모든 당사자에게 이상을 바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7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료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게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레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7평 ▶ 감정이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2003년식) ▶ 감정이 4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종일반주거지역 ▶ 감정이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방중음 ▶ 감정이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 ▶ 감정이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중음 ▶ 감정이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중음 ▶ 감정이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정 상영지역 대지32평 전면날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영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대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